

경수기꺼!

**** '92년 하계수련대회 자료집 ****

'92년 지탁여 하계수련대회

일시: 1992년 7월 30일(목)~8월1일(토)

장소: 대전카톨릭농민회관

주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지탁연 가족 소개

- *서울 북부:어린이 사랑방, 밝은 어린이집, 둥근나라 어린이방
동부:개나리동산, 슬기아이방, 오손도손 애기방
중부:개구장이 어린이방, 해송아기둥지, 또래 놀이방
봉천:꽃동네 놀이방, 봉천동애기방, 씩씩이놀이방
구로:꾸러기동산, 구로놀이방, 새터어린이방, 튼튼이 놀이방, 온누리탁아
방, 희망어린이집, 새싹놀이방, 사랑터
- *안산:진달래동산, 꿈나무어린이네, 오손도손 애기방
- *안양:우리애기방, 민들레 어린이집, 다람쥐 놀이방
- *부천:툼비니동산, 새롭아기방, 새롭어린이집, 튼튼이 아가방, 한울 놀이방
- *성남:푸른솔 애기방, 새날 아기마을, 하늘 어린이집
- *인천:골목 어린이집, 나눔의집, 민들레의집, 새싹들의 방, 햇살 어린이집, 우리
동네 어린이집, 무지개동산 어린이집, 세쌍둥이 탁아소, 엄마방 놀이방,
샘터 선교원
- *수원:아이벳 놀이방, 웅기종기
- *대전:샘골 놀이방,
- *대구:달구벌 어린이집, 참사랑 애기방, 배꼽 마당, 민들레 놀이방
- *부산:꽃들나라, 우리아가동산, 꼬마동산, 새날 어린이집, 아기자람터, 새싹
- *광주:우리동네 아기둥지, 무진 어린이방, 도담도담 아기둥지, 계림 아가방
오손도손 애기방
- *마산:두레아가동산
- *전북:일터아가들의집, 금암 어린이집, 정다운 어린이집.
- *군산:해뜨는 동산

2일 저녁 8시~

<품성론 강의>

"활동가의 품성과 자세"

사회 : 양은희 부회장

강사 : 권낙기 선생

<조별토론>

담당:김동주 (인천 교사조직분과장)

임남희 (안산 교사조직분과장)

1.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원알기 및 토론 주제 설명

2.조별 토론

<토론 주제>

① 원칙:조직적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내규나 수칙을 만들어 낸
시다.

1)기혼, 미혼여성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적 대안

미혼 72.5%, 기혼 25.8%, (자녀1명 74.5%, 2명이상 3.2%)

=>각자 처한 입장의 장점과 긍정성을 최대한 활동에 반영하고 특히 기혼
여성의 활동장애 요소가 되는 탁아문제, 육아비용등의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처하
고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구조를 정착시키자!

2)인건비

16~20만원 44.3%, 21~25만원 22%, 10~15만원 21%,

26~30만원 이상 19%, 30만원이상 2.4%, 10만원이상 1.6%

<인건비 분석과정중의 문제점>

①개념에 대한 견해 ->월급개념이 되어야 한다.(활동비+생계비)

-임금관의 차이

-출처에 대한 대안적 방안(근거가 개별적이고 모호하다.)

-책정의 근거

②교사복지중에서 인건비 부분 취약

③노동조건, 인건비차이는 지역마다 크다.

④호봉, 상여금, 퇴직금등 인건비 기준을 수준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3)탁아운동의 전망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확실하면 그것이 교사수명이 짧은

것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

계속한다. 81.4%, 잘못된다. 11.5% 가능하면 그만두겠다. 4% 다른 직장이 생기면 옮기겠다. 1.6%

-부정의 이유

①경제적이유 25% ②장시간 근무 25% ③일에 대한 전망 12.5% ④교사간 갈등 6.2% ⑤건강이 안 좋아서 2.5%

->탁아활동이 가지고 있는 장단기 목표와 특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탁아운동의 목표(육아의 사회화 실현)에 대해 개인적 전망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개인적 전망의 충실성으로 탁아활동의 창조성과 조직사업에 충실한가!

4)불평등한 교사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교사소식지

->내부교사:대표교사, 신진교사:경력교사 — 품성론 참조

5)개인생활과 조직생활의 배분

6)활동목표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각자가 가진 견해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중점 사업이 달라지고 있는데, 탁아활동의 목표에 닿기 위해 각자 생각하는 중요 사업의 견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가의 방안을 모색해 보자.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어떻게 상호전달, 공유 될 것인가!

3. 발표 총화 마무리는 다짐 의식 (노래, 시낭송)으로 한다.

담당 : 김동주, 김숙자 (구로 교사조직분과장)

-----31일 오전 9시-----

<정세분석>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을 통해, 민주정부 수립으로 나아가자!

강사: 최동규(민족민주운동연구소 상임위원)

사회: 박말신 (광주지역위 대표)

1. 총선 평가

1) 총선 결과의 요체는?

3.24총선의 대략적 결과는 민자당의 참패, 민주당의 현상유지(재야 입당파의 선전), 국민당의 약진, 민중당 노선의 실패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점검을 하자.

우선 38.5%의 지지율에 불과한 민자당 참패에 대해 살펴보자면, 현재 대중들의 반민자당 의식은 상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14대 총선의 71.9%라는 투표율은 민자당 창당이후 지배세력이 '정치 불신'을 의도적으로 확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정치적 관심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관심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민주당에 대해 살펴보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지역적 한계는 성공적으로 극복되지 않았다. 이는 지배세력의 계획된 의도의 산물로서의 지역분열과 보수 정치인의 비민주성등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주당의 쇄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민주세력의 대단결 없는 민주당만의 집권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족민주진영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해야 되는 점 중의 하나는 민중당의 해산과 재야 입당파의 선전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대중들의 사표방지심리와 보수야당의 개혁을 요구하는 마음의 반영이다. 즉 민중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았기때문에 기존야당을 지지했으나, 재야입당파를 상대적으로 더욱 지지한 것은 당선가능성이 있는 야당의 개혁파를 선호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민민진영의 총선대응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

전국연합은 주로 민중후보추대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어, 당시 수행해야 했던 주요대중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긍정적

1)그럼에도 재야입당파의 입당경로는 민민진영의 조직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민민진영은 재야입당파의 진보적 색채유지 및 민민운동대의의 복무유지를 위한 조직적 관계강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인 점으로는 주권바르게 행사하기운동, 유세장 집결투쟁, 민주후보 선정및 지지 전술 (절충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나)을 추구해 연합운동체의 합의력을 높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지하듯이 후보전술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대략 살펴보면, ▲독자 후보추대 여부를 둘러싼 지리한 논의 속에서 대중활동의 계기포착에 실패하고 동력이 약화 되었으며, ▲민중당을 비롯한 민민진영의 후보들은 반민자당 대중정서에 부합하지 못한채 민주세력의 분열을 초래하는 세력이라는 정치적 불신을 받았으며, ▲민주인사의 낙선에 일정하게 원인을 제공하였으며(경선지역의 경우), ▲낮은 득표율로 민민진영의 정치적 권위를 상실시켰고, ▲민민진영간의 경선마저 초래하여 도덕적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서 총선의 교훈을 다시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중후보를 내세워야 대중운동도 잘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 총선의 경험은 민중후보를 내세우려는 논의와 준비속에서 대중운동의 호기를 놓치고, 독자후보전술 역시 대중적 지지의 대상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제다가 정치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원인마저 제공하였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둘째, 오히려 민민진영은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기초하여 민주대연합을 주도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후보전술만으로 대중들의 절박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후보문제 해결되고 나중에 싸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 하나의 싸움에서 대중과 함께 하는 가운데 정치적 신뢰가 쌓이고, 정치적 영향력이 고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힘에 기초해서 민대련을 주도할때 '민중주도의 민대련'이 실현되는 것이며, 그를 주도한 민민진영의 정치적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셋째,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민민진영의 통일 단결이 요구된다. 분열된 정치세력이 영향력을 높일 수는 없다. 따라서 정치적 대표체인 전국 연합을 중심으로 민민진영은 단결해야 한다.

2. 대선시기 정세 전망

사회주의 권의 후퇴이후 노골적으로 유일패권전략을 명시화했던 미국은 국제적 여론의 압력에 밀려, UN등의 국제기구를 강화한다고 국방지침을 수정하였으나, 유일패권을 폐기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한편 일본의 PKO법안 통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군사적 힘을 강화하려는 일본제국주의 본질의 반영이다. 이에 미국은 사회주의권 후퇴이전에는 가장 강력하게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하였으나, 변화된 정세에 따라 일본 군사력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NATO, 유럽안보회의(CSCE)를 유지하려는 미국, 영국과 이에서 벗어나려는 독일, 프랑스간의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EC통합에 대한 합의, 독불연합군 창설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어 미국의 주도권에서 벗어나고자하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EC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NATO의 군사력을 동유럽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을 합의하는데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주도권에 온존하려는 경향 또는 미국의 주도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지지부진함등 상반된 양상이 반복되고 잇는 것이다.

이처럼 유럽, 일본의 추격에 따른 제국주의간의 일정한 갈등속에서도 관철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미국의 주도성은 한반도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합의서 채택이후 계속적인 미국의 간섭으로 남북관계는 핵사찰 문제를 중심으로 냉각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압력-- 인권문제, 미사일을 빌미로 한 압력 (상호사찰 압력등)계속적으로 공세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미국은 이를 통해 일본의 진출을 저지하고, 미국의 주도성에 기초한 북한 굴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한편 89년부터 시작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맞이하여 지배세력은 89-91년 상반기 까지는 정부 공공투자확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국제분업체제상의 지위상승 기도, 통화공급과 내수시장 확대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 심화, 내수 위축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91년 상반기부터는 감속 성장론, 한계기업도태론, 신산업정책론등을 내걸고 있다. 이는 재벌에 대한 특혜를 지양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인데,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재벌의 반발을 권력누수기에 처해 있는 현정권이 감당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2이동통신 사업, 고속전철사업등 일부 재벌에 대한 특혜의혹 (이는 대선용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에, 따른 다수 재벌의 반발은 권력누수기라는 시기적 특성과 맞물려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결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은 재벌의 반발로 호지부지되고, 노동자등 민중에의 희생강요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권력재편기 민중들의 경제적 불만은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정치상황을 살펴보자.

지배세력은 김영삼 중심으로 민자당 재집권을 기도하고, 대선이후에는 내각제 등 보수대연합 구도를 완성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점차 고질화되는 지배세력내의 균열과 노태우의 임기말 누수현상의 강화로 대선까지 안정적으로 정국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종필과의 알력, 박태준의 당 대표 선정의 문제등으로 여권내 갈등이 재개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특히 5-6공간의 갈등, 6공 주체간의 내분, 지배세력의 일 분파인 국민당의 활약 등 지배세력 상층의 갈등이 무마되지 않을 경우 상층의 갈등은 여권 지지성향층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한편 양당제를 회색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부합하면서 등장한 국민당은 본

질적으로는 지배세력이지만, 야당적 이미지를 채색하여 여-야 양당구도를 희석시키며 재벌의 정치적 진출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지배세력의 재집권에 자신이 없을 때는 민자당과의 야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

광범한 반민자당 의식, 지배세력의 분열등을 볼때 민주정부 수립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문제는 민주세력의 단결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등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투쟁성보다는 온건성을 강조하면서 민민진영과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민민진영과의 연대는 감표요인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는 민민진영의 대중적 영향력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민민진영의 후보가 없어서, 즉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어서 자기를 찍을 것이라는 판단이 전혀 없다는 할 수 없겠으나, 보다 주요하게는 민민진영과의 연대가 표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대중적 영향력이 적어서 연대를 안하는데, 독자후보를 내세우면 연대가 된다고 판단하면 안된다. 독자후보를 내세우면 저절로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은 이미 총선에서 확인되었다. 힘이 없는 후보와 민주당이 연대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따라서 민주대연합의 근거는 힘이고, 그 힘이 독자후보를 내세우면 저절로 확보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 민민진영은 대중운동에 기초해 힘을 강화하여 연합을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 방도이다.

민민진영의 주체적 조건을 고려할 때, 대선 방침에 대한 기본적 예상이 가능하다. 민민 진영은 87년 이후 양적으로 비약적 성장을 하였다. 전노협, 업종회의, 전농, 전교조 등 대대적 양적 확대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정치대오의 지도 내지는 밀접한 결합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적 대오는 진보정당문제를 둘러싸고 조직적 분열을 거듭하였다. 한편 자주적 대중조직의 경우, 89년 이후의 탄압속에서 정체, 수축되고 있다.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대표체'인 전국연합의 위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또한 전국연합 내적으로도 확고한 지도구심의 부재로 지리한 논쟁과 절충적 결정, 집행에서의 무책임 등의 현상이 극복되지 않고 있다.³⁾

물론 전국연합의 지리한 논쟁과 절충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정적 지도력의

2)주지하듯이 이종찬, 정주영 등의 새정치 주장및 야당행세는 민민진영의 입장에서 양 측면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이다. 즉 이를 계기로 지배세력의 분열이 강화된다면 집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되는 것인 반면에, 효과적으로 민민진영이 대처하지 못하면 반민자 의식의 귀결이 또다른 지배세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면의 가중성중 민민진영에게 유리한 상황을 창출하려는 적극성이 요구된다. 지배세력의 형식적 분열로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배세력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수동적 자세를 극복하고, 민자당을 소수화시키기 위해 이들을 사안별로 활용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이들의 본질을 폭로하고 무력화시키려는 효과적 노력이 요구된다.

3)이러한 운동내적인 한계는 당연히 독자후보 전술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비로서 전국연합의 정치적 권위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조건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에 우선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고, 이는 대선시기 민민진영 내적인 과제이다.

3. 대선 방침

1)92년 대선의 의미와 대선투쟁의 목표

지배세력은 당연히 재집권한후 보수대연합의 제도적 완성태로서 내각제로 개편하고자 한다. 이는 지배세력의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실패하면 지도력 재편에 봉착한다. 따라서 김대중씨는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며, 만약 이번에도 안될 경우 그 이후의 지도력 개편은 보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세력의 성장에 용이할 것이다.

민민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대연합을 주도적으로 구축, 실추된 정치적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또한 민주정부 수립을 실현한 후 민족민주진영의 성장의 호조건을 활용하여 자주 통일을 전면화시켜내는 가운데 민주정부의 동요성을 제어하고 나아가 자주적 민주정부로의 발전의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대선투쟁의 목표는 민주정부 수립이다. 민주정부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는 가는 이러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민민진영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 이후 민주정부의 동요성을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잇는지에 의해 판가를 나는 것이다.

물론 민민진영 내적인 대선시기 과제가 있다. 즉 통일 단결의 강화, 전국연합의 정치적 권위의 강화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적인 과제는 민주정부 수립에 효과적으로 복무할때 보다 높게 실현된다. 즉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대중적 과제와 민민 진영의 강화라는 과제를 수평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부수립을 최우선의 과제로 놓을때 후자의 과제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2) 대선 방침에 대하여

민주정부 수립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대연합이 요구된다. 민주대연합의 방도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민민후보 전술을 매개하는 방법과 그것을 매개하지 않는 경우이다.

민민후보전술을 매개하는 경우는 민민진영의 정치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상당히 많다.

이런 점에서 후보를 매개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그 방안을 살펴보자.

대통령 선거방안의 기본 원칙은 ▲민주대연합에 적극적이어야 함과 동시에

▲독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주대연합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민족민주진영이 민주세력의 단결을 요구하는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고서는 신뢰받는 정치세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세력이 일치단결하여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전(善戰)할때만이, 민주정부수립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설사 패배하더라도 그 이후 운동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수야당과는 구별되는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성이 요구된다. 차후엔 정치적 대안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민진영의 독자성이 대중적으로 강화되어, 이후의 정계 개편 와중에도 힘있는 세력으로서의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민족민주진영의 우선적 과제는 '대중운동의 강화'에 기초한 전국연합의 정치적 위신의 재고이다. 전국연합 및 민민진영의 정치적 위신의 제고에 기여하는 대중운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대중들의 경제적, 생활상의 불만을 적극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액 임금제 저지투쟁, 교육대개혁 및 교사복직투쟁, 농산물 가격보장과 수입개방 반대투쟁 등 제부분의 요구투쟁과 물가및 주택문제 등 전계급적 요구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대중투쟁의 기본이다. 한편 국보법, 노동악법, 교육악법 철폐투쟁등 법개정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하는 것 역시 요구되는 바이다. 그리고 이상의 투쟁은 개별적 투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대개혁 요구투쟁과의 연관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민주대개혁 요구투쟁은 각 투쟁을 총체적으로 집결시킬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민중진영을 하나의 힘으로 결집시키고, 대국민적 설득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한편으로는 자주통일 투쟁이 요구된다. 국가보안법 철폐및 남북합의서 이행투쟁,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비핵지대화 등 7-8월 통일운동을 정점으로 자주통일운동을 전개하여 권력재편기에서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기초로 기초로 국내실정을 무마하려는 지배세력의 의도를 저지하고, 자주 평화통일의 토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대선시기에 주된 투쟁은 반파쇼정치투쟁이다. 정국의 주요 사안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장 투쟁, 선거법 개정투쟁 등 권력교체기에 핵심적 사안으로 등장할 제반의 문제에 대해 기동성있게, 대대적으로 투쟁을 조직하여 반민자당 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선거시기 대중운동의 유효한 방식으로서 공정선거 감시운동, 공정선거관리 내각 요구운동등을 조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공정선거감시운동은 선거시기 민민진영의 활동폭을 넓히는 데에 유효하며, 특히 대대적인 관련 금권선거가 예상되느니 만큼 공감단 활동의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상의 여러 투쟁들은 그 자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선투쟁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기도 하며, 또한 민민진영의 전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기도 하

다.

이러한 투쟁력을 기초로 범민주세력의 결집체인 '국민회의'를 힘있게 구성해야 한다. 업종회의, 여연, 건약, 건치 등 전국연합밖의 세세력과 머뭇거리는 민주당을 대중운동의 힘으로 강제하여 국민회의로 결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힘을 계속 강화하여 결국에는 민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92년 정세의 역동성 및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투쟁성 강화등을 고려할때 대중운동에 기초하여 민주당을 끌어들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럴 경우 대중운동은 반파쇼민주화전선의 구축에 따라, 보다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투쟁은 선거시기 민주세력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그리고 대중운동 속에서 국민회의 및 이를 주도하는 전국연합의 지위가 공고해 졌다면, 그 권위를 기초로 다양한 전술이 보다 과감하게 구사될 수도 있다. 범민주 단일후보에 대한 기본적 태도를 표명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단일후보에 대한 선정 작업은 투표일로부터 1-2개월 전쯤 시작하면 될 것이다. 단일후보 선정작업은 국민회의 최고 지도부가 선정한 후보의 기준과 내용을 조직구성원에게 묻는 방법, 국민회의 밖에 정치협상회의를 별도로 구성하여 범민주후보단 일화에 필요한 정치적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회의가 수용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 과정은 국민회의 구성력과 민주당의 참여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단일후보를 선정하는 작업이 민주대연합에 기초하지 않은, 그래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이기는 커녕 민주당 지지부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단일후보에 대한 선정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후보전술에 대한 태도표명없이 반민자당 대중운동 수준에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이번 대선시기 투쟁방안의 요체는 △민주대연합에 기초한 민주정부 수립이 목표라는 점, △이를 위해서는 대중운동 중심으로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 △높아진 정치적 영향력에 기초하여 범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실현하여 민주진영의 단결을 구체화 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 등이다.

4)국민회의의 역할 중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민주당을 포함할 것인가, 후보전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단위가 될 것인가 등이 아직 미정인 상태이며, 이 문제는 발족 이후 지도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상태에 있다. 차후에 지도부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분명하게 할 것은 국민회의는 반파쇼대중운동체로서 민주당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때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민주당이 들어오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 어느때보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대중사이에 팽배하고 경제적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지배세력의 관련 금권선거가 대대적으로 자행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번 대선시기에 민주당이 국민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

-----31일 오전11시-----

<자제발제>

하반기 정세와 우리의 과제

1. 하반기 정세대응의 중요성

이상.전달과

'93년 전면적인 탁아법 개정투쟁의 돌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탁아운동 세력에게 있어 '92년도 하반기는 주체적,조직적 역량강화와 개정을 용이케하는 객관적 기반조성을 위해 그간의 활동을 총화해 내는 한편,새롭게 제기되는 과제 수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상반기 중 요구대회를 전후로 고양된 자모대중의 투쟁의지를 모아 이후 지역.중앙사업의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하반기 정세의 주요한 두 흐름이 되는 통일투쟁과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투쟁에서의 적극적 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특히,탁아운동의 전개과정 뿐 아니라,우리의 자주.민주.통일운동에 있어서 92년 대선 투쟁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우선 대선 과정에서 고양될 대중투쟁 및 대선에서의 승리 곧,민주정부수립은 국민대중의 일반 민주주의적 제권리의 보장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즉,지탁연을 포함한 각 민주단체의 합법화는 물론 국가보안법,집시법,탁아법 등 제반 악법의 철폐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대개혁안이 대중적으로 마련되고 요구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대중운동의 힘을 기반으로 민주정부의 정책생산,정착을 가능케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뤄질 민족민주진영(이하 민민진영)의 정치역량강화는 이후 자주.민주.통일의 과제를 대중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하며,지도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들 중에서도 대선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곧 한 국가내 정치세력간의 관계변화,정책기조의 변화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성은 민민진영의 통일적 방침수립과 대응이 더욱 강조 될 수 밖에 없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이번 '92 대선투쟁을 통해 각 부문 대중의 주체역량강화와 민민진영의 정치적 지도력 강화를 이뤄내는 것이 대표적 과제가 된다.이에 우리 탁아운동세력이 전체 민민진영과 통일된 대오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몇가지 방침을 지켜내야만 한다.

첫째,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대표체인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통일.단결을 강

화해내고,민중주도의 민주대연합을 실현해 내는데 복무한다.

:자모대중에게 어떻게 전국연합(조직과 그의 대안적 정책)을 선전해내고,그 위상을 높여낼 수 있을 것인가?

둘째,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민민진영의 독자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이를 통해 민주대연합내 민중주도성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한다.

:부분운동내 과제를 갖고 수행되는 투쟁열기(우리의 경우 지원확대요구투쟁등)를 8,9월 통일투쟁과 대선투쟁에서의 과제와 연결시켜내면서 배치해내어야 한다.

셋째,반독재 연합전선체로서의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를 강화해내고,반민자당 대중운동을 수행한다.

:전국연합의 주도속에 반민자에 합의하는 제반 민주세력의 결집을 도모한다. 이때 각 지역위나 중앙구조의 국민회의 참여뿐 아니라,연대활동 중 드러난 계층단체와의 지역모임 결성의 단초를 마련한다.

2. '92 하반기 우리의 과제

'92년 활동목표인 조직강화와 정책생산 구조마련및 통일적 수행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곧 각 조직구조의 정착과 결합강화, 탁아운동 주체역량강화및 세력확대,일상활동의 내용축적과 법 개정활동의 수행이 그 내용이다. 이를 하반기 정세속에서 다시 정리한다면 "8,9월 통일운동과 대선 투쟁의 적극적 결합을 통한 개정투쟁의 기반강화.고양"이 될것이다.

다음은 지난 총선활동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활동방향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이번 대선등에서 탁아운동이 어떻게 전체 민민진영의 과제를 자기과제와 결합시켜 낼 수 있는 가를 밝히는 자리 또한 될것이다.

첫째,탁아활동가의 정세감각의 고양 및 통일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대선시기 민민진영의 대동단결 투쟁의 원칙이 실현되기위하여는 하부로부터의 (각 부문운동 조직내로부터의)활발한 토론과 입장통일이 실시되어져야 한다. 구체적 방침에 대한 입장차이가 예상되나 합의한 부분에 대한 공동 실천이나마 지켜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탁연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경험했듯 총선 지침서를 이용한 교사교육이 행해졌다고는 하지만, 과정중 발견되는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이용될 만큼의 구체적 방침 합의까지는 어려웠다.따라서

①중앙 : 정책소위,교사조직분과서 정세분석 자료 정기적 보급

.중앙의 대선 대책본부서 통일 지침 마련

.탁아운동론 정리 후 지역토론 조직화 통해 정세 따른 과제와 연결 가능케해야

등인

자모 교육
교사 교육
아동 교육

하고 8월 본회의에 상정키로.민간 탁아 실태조사.

2) '92년 지역위 활동목표로는

①자모주체 역량강화:공동자모회,소모임 통해 주체역량강화 하자.

②교사자질 향상:신입교사교육과 재교육통해 탁아활동가로서 신념을 갖고 변혁운동에 복무케한다.

③올바르고 책임있는 아동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연대계기 마련하여 지역 아동상황에 맞는 교육을 펼쳐나간다.

3)평가 (각 분과 활동평가 내용 중심으로)

1.지역조직체계의 안정화와 전체교사 활동을 공유한다.

①운영위:중요사안 점검에 밀려,분과 활동교류와 점검은 미흡했다. 현재 보고수준에 그치는 논의 수준을 점차 높여나가며,단위와 교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고,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역위 결속력과 구심력을 만들어 나간다. 논의내용을 풍부히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을 앞당긴다.

②교사분과:신입교사 교육실시,기타 소모임,등반대회 준비,월례교육강좌 실시. 교사재교육기획 마련되지 못했다.하반기에 중점적 내용으로 잡아야. 교사간의 친화위해 다양한 소모임 구성이 바람직하다며 교사근황파악에 관심 가져야

신입교사 교육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원칙을 마련해야.분과인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며 역량강화위한 대안 마련해야.

③자모분과: 분과인원 부족과 상반기 행사에 밀려 전반적인 일정추진에 차질을 가져왔고 분과 활동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중반에 인원보강됨, 3.8대회 참여,임원 교육,공동자모회,상담

.자모조직화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내고 하반기 소모임,친목계를 단위별로 조직하며,지도역량을 준비한다.사업계획과 평가시,자모역량과 의식파악을 기초로 한다. 단위 자모평가도 함께 해나간다.

④아동분과:활동에 있어서 다소 느슨하고 소극적이었으나 분과원간의 상호신뢰와 격려가 이루어지고 개인적 유대도 강화되어 하반기 전망이 밝다.

.어린이날 행사와 공동선언문 배포등으로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단절된 사업을 극복하고 내용물 축적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된 분과 활동을 지켜내야 하며 분과 신입교사 교육을 실시와 효율적인 분과 활동을 위해 시간,일정을 재조정한다. 사업평가는 성과와 아동중심의 평가로 한다.

⑤개특위 :구성원 대부분이 처음 활동이라 다소 활동력은 약했다.당면과제를 전체가 공유하지 못했다.

.하반기는 개특위에 단위대표1인씩 보강하고 중앙과의 결합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특위장을 선임한다. 대선을 적극 활용하고 탁아법 개정세력을 지역내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민간 연대를 비롯한 사업계획을 세운다.

매월 구체적인 활동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

2.자모역량강화와 조직화

임원교육,소자모회,연대행사등 지속적인 사업으로 활동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으나 지원투쟁등에 적극적인 결합을 끌어내지 못했고 실천과제를 즉각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행사동원에도 다수가 불참,비영리탁아소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아직은 부족하다.

->자모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반복,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교사의 문제인식이 낮고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다.자모와의 친밀감이 부족하고 대중의 의식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

->2차조직이 단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가 있다.

3.교사의 자질 향상과 인간관계

분과 활동이 원활하게 자리잡으면서 교사의 인식차가 좁혀가고 있으나,교사재교육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위에서 교사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해가 부족하거나 배려가 잘되지 않고 있다. 대화를 늘리고 활동의 전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인간중심의 사고를 철저히 하자. 애정표시를 하자. 그리고 주는 애정은 기꺼이 받자.

4.기타 (지역위,중앙에 대한 평가 하지못함)

지역위 활동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중앙차원의 신입교사 참여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었으며 (신입교사 고충과 고민 교류,취미모임등)

<안산지역위>

1)활동내용

1월-지역위 활동계획 인준.신년회.공동임원회

2월-지탁연 '92사업계획 설명.총선대책위 구성-교사,자모교육

3월-총선대책위 안산지민회의,유권자연합 결합-대국민 선전전,유세장 참여

4월-총선평가.보육위원회의 참석.교사야유회.공동임원회.시청방문

5월-어린이날 가족체육대회.공동수익사업.한대초청 일일부모 만남.

6월-민간탁아소 1차 방문.공동 동물원 견학.요구대회 준비.교사소모임 구성 계획.요구대회참가

7월-민간탁아소 2차방문.탁아운동론 교사 재교육.

2)평가 (목표별 점검)

1.조직체계 안정화 (개별회의.대표자회의 사수.논의력 확보와 분과 활성화)와 규율 준수를 통해 지역위 연합적 결합도를 높인다.

①세탁아소 모두 개별회의의 안정적 진행 가능했다.그러나 일상활동이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분적이나마 논의력이 낮게 나타났다. ②대표자회의 사수도,확대대표자회의 구성등은 성과이나 개특위 활동까지 겸하면서 대표의 하중이 컸다.=>

사전 개별회의 논의 실시, 개특위원 확보, 분리 개별상향보고 강화등이 요구된다.

③아동교육분과, 부모조직분과, 교사조직분과의 신설로 지역위내 전문성강화와 각 개인의 적극성 유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분과장 일인체계여서 내용 생산, 확산에 어려움 있었다. => 이후 1인1분과 원칙 견지, 소모임 강화, 분과사업이 특별활동과의 연관속에서 자기 계획 내오도록 한다.

④행사배치시 중앙우선의 원칙 실현 부족.

2.주체역량강화(임원진 단련통해 자모조직내 지도중심을 세운다. 신진자모 적극결합 방안 모색,교사간 유대강화와 재교육 다양화)

①교사:지역구조내 다양한 결합통해 사업속에서 재교육, 자신감 확보, 긴밀한 결합을 가능케하였다. 그러나 일상적인 분과, 개별사업에 다소 매몰되는 경향 보이고 있다. 또한 정세분석등 정치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으나 내부에서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후 정책소위나 교사조직분과 통해 교육안 내려져야 하며, 우선 개별현장서 실시토록 한다.

②자모: 개별자모회, 임원회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탁아사업의 일주제임을 규율로서 강제할 정도의 발전 보임. 이는 법개정활동에 대한 교육, 실천의 일상화를 통해 가능하였으며, 정치의식 고양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후 공동임원회 정례화 위해 임원선출시기 상호조정, 일상적 자모교육강화와 모범 사례 교류

③자원활동가 : 자활관리가 모든 현장서 잘 안되고 있으며, 탁아분과와의 조직적 결합이나 행사시 사전교육, 중심주체화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후 개별현장서 관리주체, 내용 나와야 하며, 교사조직분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 유대감 형성 위한 행사 마련이 시급하다.

④아동:아동교육본과의 모범적 사업진행으로 통일된 교육내용확산에 기여했으며, 이는 곧 지역사업중 아동교육부분의 위상을 높이고 타 교사의 고민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지탁연의 교육목표실현을 위한 더 한층 배가되는 노력과 7세아동에 대한 공동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탁아운동의 세력확대를 위한 기반 작업(대상, 내용, 조직틀 낼것)을 실시한다.

①1,2차 민탁방문및 후속작업을 통해 연대들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지역내 탁아세력의 구심으로서 위치해가고 있다.②타단체와의 연대는 총선시기중 적극 결합을 통해 지역모임내 신뢰감 확보등을 가능케했다. 그러나 노동운동 중심인 단체들로 구성된 현 연대들 범위내에서 일상사업의 공유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새로운 계층 모임 구성, 기존틀 활용방안 모색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4. 일상활동과 특별활동간의 유기적 결합을 꾀한다.

'93년 전면적 법 개정투쟁을 준비하면서, 내적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된다.

① 일상활동에 대한 충분한 배려, 대표자회의에서의 두 활동점검,조정이 가능

하였다. ②지역개특위가 없으므로 해서 지역내 다양한 활동모색은 어려웠으나, 교사, 자모의 교육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하반기중 전지역적으로 개특위 구조 복구 요구된다.

3)대안: 계획시 반영사항(개별단위,법개정 활동강화와 함께 상반기 사업을 계승,발전시킨다.)

①조직체계강화-개특위 구성, 1인 1분과 원칙 실현, 지역대표 순회활동 부활.

②교사재교육-정치학습 정례화

③자모역량강화-신진자모 교육용 만화 자료집 발간, 임원교육 정례화, 공동가정방문 실시, 소모임 또는 자모교육감각 개척, 교육요구도 조사및 계획서 마련,

④지역위 결합력 강화- 개별점점 강화, 공동소식지 발간, 야유회

⑤민탁연대모임 (원장모임)상설화

⑥지역내 법개정활동 다양화 -10월 지역설명회 개최

⑦자활을 주체로 세우자.

〈성남지역위〉

1)평가 요약

① 아동교육분과

:아. 교분과의 역할은 올바른 아동관 확립을 위한 학습을 공유하고, 아동교육 안 연구 및 실천작업을 하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평가결과로서 아동분과 활동을 높이자는 것에 비해 축소된 느낌이다. 아동분과가 아동행사를 전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역할나눔과 공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낮시간대 모임에서 아동교육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모임 시간 확보해야 한다.

②조직분과

:조직분과의 목표는 자모회 활성화, 자모대책위 활동강화이다.

공동임원교육을 하는 것이 자모회임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보며 임원자모에 대한 정기적 활동내용 아니어도 일정한 모임속에서 행사에 대한 계획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대책위 활동에 자모회임원이 중심인자로 결합

공동부모회의 경우 교육을 유기적,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안정적 만남(활동)을 통하여 부각시켜야 =>탁아법에 관한 지속적 교육 이루자.

조직분과장이 대책위 활동에 관한 결합도가 낮아 조직분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대책위 활동하는 인자결합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

대책위 활동에 관하여 전체교사의 공유를 강화해야. 자모교육내용을 조직분과에서 전담하기 보다는 모든 교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

③운영위 평가

함께 불러봅시다 - 목청껏!

* 누가나에게이길을가라하지않았네

시 조호상
가락 김성민

누가 나에게 이길 - 을 - 가라 하지 않았네
내게 투쟁의 이길 - 로 - 가라 하지 않았네 그러
나 한걸음 또한걸음 어느 새 적들의목전 에 눈물
고개 넘어 노동 자의길걸어 한 걸 음씩달고왔을 뿐 누가
나 에게이 길 을 일러 주지 않았 네 사슬
끊고 흘러넘 칠 노 동 해방이길 을 -

* 사람이 태어나 (노랫말. 가락 유인혁)

사람이 태어나서 - 세번을 운다지만 -
노동자는 오직 한번 - 동지를 위해 운다 -
끝없는 노동속에 - 우리 젊음 흘러가도 -
머리띠를 묶으면 - 다시 또 청춘이 다
노동자 가는 길에 - 후회 - 일랑 없구나 -
오늘은 투쟁이다 - 내일은 해방 -

* 다시 또 다시. (노래모임 '새벽')

다시 또 다시 일 어 서 라
우 리 - 의 아 침 이 밝 을 때 까 지
노 동 형 제 들 이 앞 서 나 가 는 힘 나 는 이 길 에 우 리
문 의 투 쟁 이 승 리 할 그 날 까 지
다 시 또 다 시 일 어 서 라 새 우 자
다 시 또 다 시 일 어 - 서 - 라

* 바쳐야 한다 (백종환 준. 작)

1.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바쳐라 사랑은 그런대 아름다워라
2. 구차한 목숨으로 사랑은 못해 사랑은 그렇게 넓지않아라

슬대고 설을때 한-번쯤은 목숨을 내걸고 마쳐보라
두려움에 떨며는 슬도 못매겨 그렇게 멋진일에 내가죽는다

전선 에 서 맺어 건 동 지 가 있 다-면
붉은 망 시 붉은 피로 맺어 건 동 지 -여

바쳐야 한다 죽는날까지 아낌없이 바쳐-라
죽어도 운다 그날은 온다 민-족의 해방이여

변방이든 칼 창 움켜지고 내서라 건나며 그날을 위해 이
변방이든 칼 창 움켜지고 지켜라 지내며 우리의 깃발 이

한 목숨 걸고 나사라. 이 한 목숨 걸고 지켜라
한 목숨 걸고 지켜라.

* 투쟁의 한길로 (박종화 작곡)

1. 역사의 부름엔 애 부끄러움 자 되 어 건축
불 한낱기 능사 도 거두려 들 두 얹 는 만민

2. 기쁨때 같이 울고 슬픔은 나히가 가거 두리
이 땅에 천년토라 너라 내 가 나 나되 러 향토

은 등길 수영사 어 나로 부 터 노 라 보
의 말 아 들 아 어키 달 어 나 거 라 보
근 두 더 뭉어 사날 대날 위 해 나 가 거
리 운 두 리 갈 산 동들 잡 고 달아거 거

은 태양 떠 물 - 라 깃발 이 서 면 태양
은 태양 떠 물 - 라 깃발 이 서 면 태양

의 충고 리 나를 부 르 는 함 성
의 충고 리 나를 부 르 는 함 성

나 서 거 라 투쟁의 한길로 산산이 부서지거 라
나 서 거 라 투쟁의 한길로 산산이 부서지거 라 --
나 서 거 라 투쟁의 한길로 산산이 부서지거 라 --

* 전진하는 여성 노동자

노래말 최 준
가 락 김성민

힘차게

아 무도불러주지 않아도 우 리는당 당한 이 땅의반

젖 물고잠든아이 미래를위해 맑은웃음번치않고 싸우려간다

1. 구사 - 대몽동이보 다 더 아 픈 것 은
*2. 모성보호쟁취를위 해 투 쟁 한 다 면

1. 해 - 방의하 - 늘을 열지못하고 운 명에달 - 겨 쓰러짐이다
2. 평생평등노동세상 열어젖히고 해 방의눈물꽃 만발하리라

나가자 여성노동자 자랑스런동 지 여

1. 여성 해방 그 날 위 해 우뚝 서라 해방 전 사 여
2. 노동 해방 그 날 위 해 우뚝 서라 해방 전 사 여

* 필요에 따라 "차별임금 철폐를 위해로"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연대 투쟁가

노래말 가락 윤민석

Am Em Am F G7 C E

연 대의깃 발을 올 려 라 총 진군 이 다

Dm G7 C Dm Dm7 E

머 리 - 띠 뉘 - 어주며 어깨걸고일 어서 자

Am Em Am F G7 C E

우 리는피 비를 모 른 다 후 회도모 른 다

Dm G C E7 F E Am E

강 철같은 연 - 대투쟁 전 진 - 쥔 이 다 그 래

Am E Am Dm G C

너희에겐외세와 자본이있고 폭력집단경찰과 군대있지만

Dm Am F E Dm Dm7 B7 E

우리에겐신명과 의리로뭉친 죽음도 함께하는 동지 가있다

Am G F G C A

보아라 연대 의 깃 발 들어라 단결 의 함 성

Dm Am F E7 Am

너희의 마 지 막 발 악 투쟁 으로화 - 답하리 라

34

지택연 가족 주소록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소록

152-055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2층 전화:838-3296~7

지역	이 름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어린이사랑방	132-107 도봉구 미아7동 852-613	989-4524
	밝은 어린이집	136-104 성북구 정릉4동 236-858	917-6220
	등근나라어린이방	132-101 동봉구 미아1동 791-2001 22/4	984-0880
동부	개나리동산	133-110 성동구 성수1가 211-1	469-1325
	슬기아이방	133-121 성동구 성수2가 1동 566-35	467-2330
	오손도손애기방	133-072 성동구 행당2동 322-158	296-2272
중부	개구장이어린이방	110-542 종로구 창신2동 660-14	762-2010
	해송아기둥지	110-542 종로구 창신2동 626-36	762-9201
	또래 놀이방	110-080 종로구 무악동 46-1205	723-5368
봉천	꽃동네놀이방	137-070 서초구서초동 1501-7	588-4244
	봉천동애기방	151-055 관악구 봉천9동 산102-30	877-3617
	씩씩이놀이방	151-053 관악구 봉천3동 산89-16호 4/4	872-1781
구로	꾸러기동산	152-053 구로구 구로3동 791-25	855-3579
	구로놀이방	152-021 구로구 가리봉1동 136-18	863-0468
	새터어린이방	152-011 구로구 독산1동 147-56	867-8698
	튼튼이놀이방	152-050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869-1347
	온누리탁아방	152-022 구로구 가리봉2동 25-160	858-4886
	희망어린이집	152-056 구로구 구로6동 98-15	853-8853
	새싹놀이방	150-056 영등포구 신길 6동 3185 4층	849-3920
	한울탁아방	150-072 영등포구 대림2동 1069-6	844-5023
	사랑터	152-022 구로구 가리봉2동 1-9	864-4649
안산	오손도손애기방	425-130 안산시 원곡동 746-14	0345)494-9588
	진달래동산	425-130 안산시 원곡동 범신연립 라-101	495-6700
	꿈나무어린이네	425-130 안산시 원곡동 803-2	495-3962

안양	우리아가방	430-017 안양시 안양7동 124-1	0343)41-6734
	다람쥐놀이방	435-010 경기도 군포시 당동 280-3	55-5321
	한무리어린이집	430-083 안양시 호계3동 706-4	54-5963
부천	룸비니동산	421-170 부천시 중구 오정동 557-14	032)671-7617
	새롭아기방	(주소 위와 동일)	677-1132
	새롭어린이집	421-140 부천시 약대동 145-1 새롭교회내	676-0154
	한울 놀이방	429-010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80-1 3층	691-0349
	튼튼이 아가방	421-150 부천시 중구 삼정동 313-12호2층	676-1887
성남	푸른솔애기방	461-123 성남시 2동 3922	0342)47-5456
	새날아기마을	461-122 성남시 상대원3동 2304	47-9877
	하늘어린이집	461-152 성남시 은행2동 1082-2호	41-1448
	동방어린이집	462-241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671 2층	732-0704
인천	꿀목어린이집	402-205 인천시 남구 주안5동 8-60	032)864-2784
	나눔의집	402-063 인천시 남구도와3동 52-20	863-2659
	민들레의집	402-021 인천시 동구 화수1동 278-30	762-8664
	새싹들의방	404-250 인천시 서구 가좌3동 한샘 APT A동 102호	573-6304
	햇살어린이집	403-030 인천시 북구 청천동 86-7	525-3734
	우리동네 어린이집	403-040 인천시 북구 효성1동 153-7 18/4 3층	517-0635
	무지개동산 어린이집	403-020 인천시 북구 산곡동 180-390	529-9479
	세쌍둥이탁아소	402-022 인천시 남구 용현2동 473-1호	887-0531
	엄마방놀이방	403-011 인천시 북구 부평4동 887번지 39-3	526-5849
	샘터 선교원 어린이집	403-131 인천시 북구 십정1동 191-16	516-6459
	수원	웅기종기놀이방	441-360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93-2호
아이벚놀이방		440-060 수원시 장안구 지동 365-17	252-4700

대전	샘골놀이방	306-020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6-4 26/1	042)626-3198
대구	달구벌어린이집	702-052 대구시 북구 침산2동 299-2	053)353-1326
	참사랑애기방	703-041 대구시 서구 비산1동 782-47	556-6338
	배꼽마당	702-072 대구시 서구 비산6동 361-2	557-0419
	민들레놀이방	703-011 대구시 서구 평리1동 743-2	553-5669
부산	꽃들나라	616-091 부산시 북구 구포1동 7B-3M 25/5	051)336-3328
	우리아가동산	614-012 부산시 진구 가야2동 590-14	894-3218
	꼬마동산	608-062 부산시 남구 우암2동 189	647-9434
	새날어린이집	616-030 부산시 북구 엄궁동 465-19	328-6264
	아기자람터	614-044 부산시 진구 전포4동 191-223	816-4383
	새싹	614-024 부산시진구 범천4동 산38번지11/3	638-1292
전주	일터아가들의집	560-200 전주시 팔복동 2가 290-1 전북일보 제2별관 3층	0652)211-1803
이리	금암어린이집	560-182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514-1	253-0389
	정다운어린이집		
군산	해뜨는동산	573-150 군산시 선양동 905	0654) 63-0962
광주	우리동네아기둥지	502-223 광주시 서구 양3동 384-1	062)364-3831
	무진어린이방	502-210 광주시 서구 광천동 655-9	366-2600
	도담도담아기둥지	502-233 광주시 동구 학3동 901-314	228-6786
	계림아가방	501-083 광주시 동구 계림3동 202-2	227-8864
	오손도손애기방		222-2202
마산	두레아가동산	630-500 마산시 봉암동 436-3 17/1 대정빌딩 4층	0551) 99-6630
거창	하루종일어린이집	670-8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2-1	0698)857-1944

